

대구지역 전문대학생들의 성폭력 인식도 및 성교육이 성폭력 대처에 미치는 관련요인

김성우†

영남이공대학 보건과학계열

The recognition of sexual violence of in Daegu local college students, and relations of sexual education on the coping with sexual violence

Sung-Woo Kim†

Division of Health Science, Youngnam College of Science and Technology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recognition and problems of in Daegu local college students on sexual violence and figure out major factors to prevent sexual violence and to use as necessary basic resources for the improvement of individual and social recognition and effective sexual education.

Methods: The Data from 255 students (85%) out of 300 excluding questionnaires with insufficient answers were under analysis using Excel Program and SPSS Win 17.0 for cross-tabulations and correlation analysis. Significance test were performed using χ^2 -test.

Results: 1) As to recognition of sexual violence by gender, 88.2%(60) of male and 91.4%(171) of female students conceived the current sexual violence level is hazardous which shows female students had slightly higher recognition. 2) As to recognition of sexual education by gender, both conceived it for equipping proper value system of sex(55.9% of male & 61.5% of female student). 3) As to prevention and coping with sexual violence by gender, 58.8% of male students and 65.2% of female students answered that prevention is possible. 4) As to the correlation between sexual violence factors, it showed positive (+) correlation in the experience of sexual education and the recognition of sexual violence level, in the recognition of sexual violence level and the recognition of sexual violence responsible scope, and in the possibility of sexual violence prevention and the recognition of sexual crime prevention law. 5) As to the recognition

접 수 일 : 2011년 7월 5일, 수 정 일: 2011년 9월 15일, 채 택 일: 2011년 9월 20일

† 교신저자 : 김성우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274 영남이공대학 보건과학계열)

Tel: 053)650-9289, Fax: 053)650-5722, E-mail: ksw9312@hanmail.net

and measurement by experience of sexual education, among those who answered the current sexual violence level was hazardous 91.8% had previous sexual education experience and 83.3% had no experience. 6) As to the recognition and measurement of sexual violence by experience of sexual violence (self-determination), those with sexual education experience (79.8%) had little experience in sexual violence than those with not (91.6%). 7) As to the recognition and measurement of sexual violence by the possibility of preventing sexual violence, it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eason of increase of sexual violence($p < 0.01$).

Conclusions: Accordingly, to provide systematic and sustainable sexual education, individualized education considering gender, individual development rather than standardized group education in its teaching method is necessary, and follow-up evaluation and feed-back system should be implemented to assess achievement and recognition of sexual education.

Key words: Sexual violence, Sexual education, Recognition of sexual violence, Prevention and measurement of sexual violence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사회에서 성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연구하게 된 것은 1980년대 중반이후였다. 그동안 성이 사적이고 은밀하며 때가 되면 저절로 알게 되는 그 무엇이어서 공식적인 언급이 금기시 되었던 것에 비해 이제 성은 상당한 넓이와 깊이로 일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성희롱’이란 새로운 문제가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상한 것은 1993년 서울대 교수의 조교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이후부터이다. 이때부터 드러나지 않았던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그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였고, 이 시기를 전후로 국내의 대학가에서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예방·대처하는데 필요한 대학정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한국성폭력상담소가 2001년도에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10곳을 선정하여 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 내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의 28.3%가 성폭력의 피해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하여 3명 중 1명꼴로 대학내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임재연, 2006). 이 자료에 의하면 대학내 성희롱·성폭력사건의 실태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가에서 성희롱과 함께 두루 사용하며, 때로 성희롱과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개념이 바로 ‘성폭력(sexual violence)’이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강간, 성추행, 성희롱 등이 모두 포함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상대의 의사에 반해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으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법은 일단 성희롱과 성폭력을 각기 규제하는 법률과 규제방법에 있어 구분하고 있다. 즉,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범죄행위로서 처벌하고 있고,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성차별의 한 유형으

로 규정하고 형벌부과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 보다는 경미한 성적 형태로 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어떤 형태로든 성적인 사건과 연관되었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항의를 한다 해도 학업보다는 성적인 면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킬까봐 두려워한다. 때문에 항의한다고 해서 아무런 대책을 마련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있으며, 문제의 가해자 및 동료들로부터 받을지도 모를 보복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또한,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여성은 모욕감, 불쾌감, 불안감, 소외감, 자기비하, 자신감상실, 피해의식, 자아존중감 상실, 공포, 사회전반에 대한 불신감 등의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이것이 불면증, 노이로제, 식욕상실, 위장장애, 두통 등의 신체적 증상으로까지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대부분의 피해자는 그러한 고통을 반복적으로 당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또 다시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지속적인 불안감을 지닌 채 살아가게 된다(강희순, 2002).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지만 서울 소재 의대생들이 동료 여학생을 집단적으로 성추행하여 사회적 관심을 크게 받은 적이 있다. 따라서 남·녀 개인의 개방적인 성의식과 태도가 널리 퍼지는 추세를 감안할 때 대학에서 성희롱·성폭력의 발생에 따른 갈등과 분쟁 또한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학사회의 성희롱·성폭력 문제의 복합적인 현실과 예방 및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유교적이고 가부장적 사회의 중심지역이었던 대구지역은 한국사회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중적인 성문화, 왜곡된 성문화 등의 특징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있는 지역이다. 얼마 전 지역의 모대학교 교수가 대학생을 성희롱하여 징계를 받았고 최근에는 실제사건을 다룬 영화에서 학교의 교사들이 제자인 장애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뜨거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자유롭

고 인격적인 면학의 풍토를 보장해야 할 학교에서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복지를 위협하고 학교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학생의 장래의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은 그러한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우수한 인적 자원의 능력을 사장시킬 수 있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선행연구가 없었던 대구지역 전문대학생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영향을 주는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성폭력 예방을 위한 개인적·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효과적인 성교육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이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대구지역 전문대학생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영향을 주는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성폭력 예방을 위한 개인적·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효과적인 성교육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두었으며,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대상자의 성별 성폭력 인식도를 분석한다.
- 2) 연구대상자의 성별 성교육 효율성을 분석한다.
- 3) 연구대상자의 성폭력 예방 및 대처에 미치는 관련요인을 분석한다.
- 4) 연구대상자의 성폭력 관련요인간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이 연구는 2010년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2주간 조사되었으며, 연구대상지역인 대구광역시 소재 대구보건대학과 영남이공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에서 300명을 임의 추출하여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 연구도구

이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임재연(2006)의 '대학내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일부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직접 30명의 연구대상자들에게 배포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수정보완 후 본 질문지로 확정하였다. 설문지 조사는 훈련된 대학생 조사원이 2인 1조가 되어 각 대학별 조사지역에서 연구대상 학생들에게 협조를 구한 뒤 질문지를 배부하여 연구에 대한 당위성과 내용을 설명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응답케 한 후 직접 수거하였다. 연구도구는 일반적 특성 4문항, 성폭력인식도 7문항, 성교육실태 5문항, 성폭력 피해경험관련 6문항, 성폭력 대처 및 예방관련 5문항, 성교육 관련 5문항 등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자료 분석방법

이 연구의 분석방법은 조사대상자로부터 수집된 자료 중 잘못 기재되거나 무응답이 많은 자료를 제외하고, 연구대상자 300명 중 255명(전체 85%)의 응답자를 Excel과 SPSS Win

17.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상관분석, Cronbach's Alpha 신뢰도 분석을 하였고 유의성 검정은 χ^2 -test로 하였다. Cronbach's Alpha 신뢰도 지수는 0.642였다.

4.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대구지역 소재 일부 전문대학생(300명)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일부 지역적 특성과 연구결과를 전체 전문대학생으로 일반화화 하는데 제한점과 한계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III. 연구결과

1. 성별 성폭력 인식도

이 연구대상자 255명의 성별 성폭력 인식도에서 현재 성폭력 수준이 위험하다는 인식은 남자 88.2%(60명), 여자 91.4%(171명)로 여자가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성폭력의 책임범위는 양측모두 있다는 의견이 남자 41.2%, 여자 33.2%로 나타났다. 성폭력의 증가이유로는 가해자의 처벌이 미약하다는 의견이 여자(66.8%), 남자(47.1%)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가판단 기준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성 피해를 경험한 질문에서는 여자 65.2%, 남자 2.9%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성폭력 목격 시 도울 의사는 남자 82.4%, 여자 81.8%로 비슷하게 높았다. 유의성 검정에서는 성 피해 경험여부($p < 0.01$)와 성폭력 증가이유($p < 0.05$)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1>.

<표 1> 성별 성폭력 인식도

단위: 명(%)		
구 분	남 자	여 자
성폭력 수준인식($\chi^2=4.191$)		
위험	60(88.2)	171(91.4)
보통	8(11.8)	11(5.9)
안전	0(0.0)	5(2.7)
성폭력 책임범위($\chi^2=1.405$)		
가해자	40(58.8)	125(66.8)
양측모두	28(41.2)	62(33.2)
성폭력 증가이유*($\chi^2=8.505$)		
성문화 개방풍조	18(26.5)	34(18.2)
성교육 부족	18(26.5)	28(15.0)
가해자 처벌미약	32(47.1)	125(66.8)
성피해 경험여부(자가판단)**($\chi^2=123.612$)		
있음	2(2.9)	122(65.2)
없음	66(97.1)	65(34.8)
성폭력 목격 시 도움 의사($\chi^2=0.010$)		
있음	56(82.4)	153(81.8)
없음	12(17.6)	34(18.2)
계	68(100.0)	187(100.0)

*p<0.05, **p<0.01

2. 성별 성교육 관련 인식도

연구대상자의 성별 성교육 관련 인식도에서 성교육의 필요이유는 남녀 모두 성가치관 확립을 위해(55.9%, 61.5%), 성적 피해예방(41.2%, 32.6%)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교육을 받은 경험은 남자 100%, 여자 80.7%로 조사되었다. 희망하는 성교육 분야는 남자의 경우 성폭력 및 성병(32.4%), 이성교제와 심리(23.5%), 성가치관(23.5%)순이었고, 여자의 경우 가치관(33.2%), 이성교제와 심리

(31.6%), 신체변화와 임신(18.2%)순으로 차이가 있었다. 성교육 경험자(219명)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의 도움정도(효율성)을 조사한 결과, 남자는 도움안됨 70.6%, 도움됨 29.4%이었고, 여자는 보통 79.5%, 도움됨 13.9%순으로 나타나 성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성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성교육 받은 경험(p<0.01), 성교육 도움정도(p<0.01), 성교육 희망분야(p<0.05)에서 성별 차이가 있었다<표 2>.

<표 2> 성별 성교육 관련 인식도

단위: 명(%)		
구 분	남 자	여 자
성교육 필요이유($\chi^2=2.154$)		
성적 피해예방	28(41.2)	61(32.6)
이성의 환상 통제	2(2.9)	11(5.9)
성가치관 확립	38(55.9)	115(61.5)
성교육 받은 경험**($\chi^2=15.243$)		
있음	68(100.0)	151(80.7)
없음	0(0.0)	36(19.3)
성교육 희망 분야*($\chi^2=8.225$)		
신체변화와 임신	14(20.6)	34(18.2)
이성교제와 심리	16(23.5)	59(31.6)
성폭력 및 성병	22(32.4)	32(17.1)
성 가치관	16(23.5)	62(33.2)
계	68(100.0)	187(100.0)
성교육 도움 정도(효율성)** #($\chi^2=160.297$)		
도움됨	20(29.4)	21(13.9)
보통	0(0.0)	120(79.5)
도움안됨	48(70.6)	10(6.6)
계	68(100.0)	151(100.0)

* $p<0.05$, ** $p<0.01$, #대상자 219명

3. 성별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성별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에서 예방가능이 남자 58.8%, 여자 65.2%로 나타났으며, 성범죄 예방방법을 인지한다가 남자 32.4%, 여자 26.7%로 남자가 조금 높게 나타났다. 성폭력을 예방하는 대처방안에서 남자는 호신술 및 호신용품소지 35.3%, 이른 귀가 32.4%순이었고, 여

자는 이른 귀가 41.2%, 단정한 옷차림 20.9%순으로 차이가 있었다. 현행 성폭력 처벌의 정도에서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남자 76.5%, 여자 83.4%로 나타나 성폭력 처벌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남녀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p<0.05$)에서만 나타났다<표 3>.

<표 3> 연구대상자의 성별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구 분	명(%)	
	남 자	여 자
성폭력 예방가능 여부($\chi^2=0.886$)		
가능	40(58.8)	122(65.2)
불가능	28(41.2)	65(34.8)
성범죄 예방법 인지 여부($\chi^2=0.776$)		
인지	22(32.4)	50(26.7)
불인지	46(67.6)	137(73.3)
성폭력 예방법*($\chi^2=8.618$)		
호신술 및 호신용품소지	24(35.3)	34(18.2)
단정한 옷차림	12(17.6)	39(20.9)
이른 귀가	22(32.4)	77(41.2)
기타	10(14.7)	37(19.8)
현행 성폭력 처벌 정도($\chi^2=2.951$)		
적당	6(8.8)	7(3.7)
미흡	52(76.5)	156(83.4)
모르겠음	10(14.7)	24(12.8)
계	68(100.0)	187(100.0)

*p<0.05

4. 성폭력 관련요인간 상관관계

성폭력 관련요인간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성교육 경험유무와 성폭력 수준 인식, 성폭력 수준인식과 성폭력 책임범위 인지, 성폭력 예방

가능 여부와 성범죄 예방법 인지 여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성폭력 책임범위 인지와 성 피해 경험 여부, 성 피해 경험 여부와 성 범죄 예방법 인지 여부에서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표 4>.

<표 4> 성폭력 관련요인간 상관관계

구 분	성교육 경험 유무	성폭력 수준 인식	성폭력 책임 범위 인지	성 피해 경험 여부	성폭력 예방 가능 여부	성범죄 예방 및 대처방안 인지여부
성교육 경험 유무 ¹⁾	1					
성폭력 수준인식 ²⁾	0.148*	1				
성폭력 책임 범위인지 ³⁾	0.030	0.148*	1			
성 피해 경험 여부 ⁴⁾	0.111	0.023	-0.169*	1		
성폭력 예방 가능 여부 ⁵⁾	-0.116	-0.056	0.020	-0.045	1	
성범죄 예방 및 대처방안 인지여부 ⁶⁾	-0.155*	-0.049	0.055	-0.665**	0.145*	1

주) ** p<0.05, * p<0.01

- 1) 성교육경험 유무 : 있음 1, 없음 2
- 2) 성폭력 수준인식 : 위험 1, 보통 2, 안전 3
- 3) 성폭력책임 범위인지 : 가해자 1, 양측모두 2
- 4) 성 피해 경험여부(자가판단) : 있음 1, 없음 2
- 5) 성폭력 예방가능 여부 : 가능 1, 불가능 2
- 6) 성범죄 예방 및 대처방안 인지여부 : 인지 1, 불인지 2

5. 성교육 경험유무에 따른 인식 및 대처요인

성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성폭력 인식 및 대처요인에서 현행 성폭력의 수준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교육경험 있음 91.8%, 없음 83.3%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성폭력 목격 시 도울 의사, 성폭력 예방가능여부, 성범죄 예방법 인지여부에서 성교육 경험자가 비경험자보다 조금 더 적극

적이거나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으로는 경험자 경우 이른 귀가 37.0%, 호신술 및 호신용품소지 23.3%, 단정한 옷차림 21.0%순이었고, 비경험자도 이른 귀가 50.0%, 호신술 및 호신용품소지 19.4%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는 성폭력 인식수준(p<0.05)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5>.

<표 5> 성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성폭력 인식 및 대처요인

단위: 명(%)

구 분	가해자	양측모두
성교육 받은 경험($x^2=2.237$)		
있음	143(86.7)	76(84.4)
없음	22(13.3)	14(15.6)
성폭력 수준인식**($x^2=9.987$)		
위험	156(94.5)	75(83.3)
보통	6(3.6)	13(14.4)
안전	3(1.8)	2(2.2)
성폭력 증가이유($x^2=5.308$)		
성문화 개방풍조	27(16.4)	25(27.8)
성교육 부족	29(17.6)	17(18.9)
가해자 처벌미약	109(66.1)	48(53.3)
성피해 경험여부(자가판단)($x^2=3.146$)		
있음	87(52.7)	37(41.1)
없음	78(47.3)	53(58.9)
성폭력 목격 시 도움 의사($x^2=1.646$)		
있음	139(84.2)	70(77.8)
없음	26(15.8)	20(22.2)
계	165(100.0)	90(100.0)

* $p<0.05$

6. 성 피해 경험여부(자가판단)에 따른 성폭력 인식 및 대처요인

성 피해 경험 여부(자가판단)에 따른 성폭력 인식 및 대처요인에서 성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79.8%)가 없는 경우(91.6%)보다 성 피해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 피해 경험자가 성폭력 책임범위도 가해자(70.2%)에게 있다는 의견이 높게 조사되었다. 성폭력 증가이유에서

도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가해자의 처벌미약 71.8%, 성문화 개방풍조 15.3%순이었고, 없는 경우도 가해자 처벌미약 51.9%, 성문화 개방풍조 25.2%순이었으나 비율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성폭력 목격 시 도움 의사도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84.7%)가 없는 경우(79.4%)보다 조금 더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성교육경험유무($p<0.01$)에서만 나타났다 <표 6>.

<표 6> 성 피해 경험 여부(자가판단)에 따른 성폭력 인식 및 대처요인

단위: 명(%)

구 분	있 음	없 음
성폭력 수준인식*(x ² =8.969)		
위험	201(91.8)	30(83.3)
보통	16(7.3)	3(8.3)
안전	2(0.9)	3(8.3)
성폭력 목격 시 도움 의사(x ² =0.056)		
있음	180(82.2)	29(80.6)
없음	39(17.8)	7(19.4)
성폭력 예방가능 여부(x ² =0.106)		
가능	140(63.9)	22(61.1)
불가능	79(36.1)	14(38.9)
성범죄 예방법 인지 여부(x ² =0.748)		
인지	64(29.2)	8(22.2)
불인지	155(70.8)	28(77.8)
성폭력 예방법(x ² =2.403)		
호신술 및 호신용품소지	51(23.3)	7(19.4)
단정한 옷차림	46(21.0)	5(13.9)
이른 귀가	81(37.0)	18(50.0)
기타	41(18.7)	6(16.7)
계	219(100.0)	36(100.0)

**p<0.01

7. 성폭력 예방가능 여부에 따른 성폭력 인식 및 대처요인

성폭력 예방가능 여부에 따른 성폭력 인식 및 대처요인에서 성교육 경험유무, 성폭력 수준인

식, 성폭력 책임범위, 현행 성폭력 처벌정도의 항목은 비슷한 응답을 하였으나, 성폭력 증가이유(p<0.01), 성범죄 예방법 인지여부(p<0.01), 성폭력 예방법(p<0.05)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7>.

<표 7> 성폭력 예방가능 여부에 따른 성폭력 인식 및 대처요인

단위: 명(%)

구 분	가 능	불가능
성교육 경험 유무($x^2=0.106$)		
있음	140(86.4)	79(84.9)
없음	22(13.6)	14(15.1)
성폭력 수준인식($x^2=2.118$)		
위험	144(88.9)	87(93.5)
보통	15(9.3)	4(4.3)
안전	3(1.9)	2(2.2)
성폭력 책임범위($x^2=3.451$)		
가해자	98(60.5)	67(72.0)
양측모두	64(39.5)	26(28.0)
성폭력 증가이유**($x^2=9.575$)		
성문화 개방풍조	36(22.2)	16(17.2)
성교육 부족	37(22.8)	9(9.7)
가해자 처벌미약	89(54.9)	68(73.1)
성피해 경험여부(자가판단)($x^2=0.522$)		
있음	76(46.9)	48(51.6)
없음	86(53.1)	45(48.4)
성범죄 예방법 인지 여부**($x^2=7.161$)		
인지	55(34.0)	17(18.3)
불인지	107(66.0)	76(81.7)
성폭력 예방법*($x^2=8.508$)		
호신술 및 호신용품소지	39(24.1)	19(20.5)
단정한 옷차림	39(24.1)	12(12.9)
이른 귀가	61(37.7)	38(40.9)
기타	23(14.2)	24(25.8)
현행 성폭력 처벌 정도($x^2=3.188$)		
적당	9(5.6)	4(4.3)
미흡	127(78.4)	81(87.1)
모르겠음	26(16.0)	8(8.6)
계	162(100.0)	93(100.0)

* $p<0.05$, ** $p<0.01$

IV. 논 의

이 연구는 대구지역 전문대학생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그에 영향을 주는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성폭력 예방을 위한 개인적·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효과적인 성교육을 위해 교육내용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연구이다.

여성부(2002)가 전국 20개 대학의 남녀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전체 여성 응답자의 36.7%(교수 30.8%, 직원 30.3%, 학생 39.1%)가 지난 1년간 한번 이상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고 남성의 46.1%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내 성희롱의 피해는 대체로 업무나 활동의 성격이 유사하거나 접촉의 기회가 많은 사람들(교수-교수, 직원-직원, 학생-학생)간에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언어적 성희롱이 가장 많은 편이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는 음식점, 노래방, 주점 등이고 M.T 장소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성폭력 인식도에서 성 피해 경험여부(자가판단)를 조사한 결과 남자에 비해 여자가 65.2%로 성피해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어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을 막론하고 여성들의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가까운 피해를 경험하고서도 대부분은 그냥 참고 넘기는 식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성부(2005)의 조사에서 성폭력 가해자의 유형분석을 보면 교사나 강사에 의한 성폭력이 2002년 2.4%, 2003년 3.0%, 2004년에는 3.4%로 증가하고 있으며, 동급생이나 선후배에 의한 성폭력도 2002년 8.8%, 2003년 9.4%, 2004년에는 11%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여대생의 경우 직장여성보다는 어리고 경험이 부족해서 성적언행을 이성으로부터 관심과 칭찬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권력이나 지

위상 우위에 있는 사람의 의도는 처음에는 불분명한 경우가 많기에 종종 성희롱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향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에 있어 교수, 직원, 학생의 집단문화 특성에 맞는 대상별 교육방식을 채택하고 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학생들의 경우 예방교육을 교과목 학점으로 하여 실질적인 강좌교육으로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

임재연(2006)의 연구에서 성희롱·성폭력의 원인에 대한 조사에서 남자의 경우 올바른 성교육의 부재와 성희롱에 대한 미약한 처벌과 사회적 무관심, 여자의 경우 남성 중심적인 사회 구조와 그로 인한 왜곡된 성문화, 성희롱에 대한 미약한 처벌, 올바른 성교육의 부재로 조사되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남녀 모두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 미약이 가장 높았고, 남자의 경우 성교육 부족, 성문화 개방풍조, 여자의 경우, 성문화 개방풍조, 성교육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폭력 증가 원인에 대한 인식이 다소 변화한 이유는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의 하나인 법적처벌의 미약과 성교육 부족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법체계의 확립과 성교육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성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 올바른 성지식을 배우고 성가치관 확립에서 남녀 모두에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임재연(2006)에서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김향숙(2008)의 연구에서 성교육의 필요성 조사에서 성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며, 학교와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성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의 내용도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도 성교육의 필요성은 남녀 모두 성가치관 확립과 성적피해 예방을 위해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이는 학

령 수준을 탈피하여 성교육의 필요성은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지원(1999)의 연구에서 성교육 경험에 있어서는 대학생들은 학교교육과정에서 대체적으로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나 일시적인 성교육이었으며, 대학교 과정에서의 성교육 경험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성교육 만족도 및 요구도 에서는 대학생들이 경험한 성교육의 효과와 만족도에 대한 평가는 성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보다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 연구에서는 성교육을 받은 경험에서 남녀 모두 높았으나, 성교육의 도움정도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지금까지의 성교육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대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성교육의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성교육을 만족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성교육의 내용이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하며 현실점에서 겪고 있는 문제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V. 결 론

최근 들어 사람들의 인식이 예전과 달라 성을 쉽게 인식하고, 그것을 악용함에 따라 성에 관한 여러 가지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연구는 대구지역 전문대학생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그에 영향을 주는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성폭력 예방을 위한 개인적·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효과적인 성교육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대구지역 전문대

학생 남녀 255명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대상자의 성별 성폭력 인식도에서 현재 성폭력 수준이 위험하다는 인식은 남자 88.2%(60명), 여자 91.4%(171명)로 여자가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성폭력의 증가이유로는 가해자의 처벌이 미약하다는 의견이 여자(66.8%), 남자(47.1%) 모두 가장 높았다.
- 2) 연구대상자의 성별 성교육 관련 인식도에서 성교육의 필요이유는 남녀 모두 성가치관 확립을 위해(55.9%, 61.5%), 희망하는 성교육 분야는 남자 경우 성폭력 및 성병(32.4%), 여자 경우 성가치관(33.2%)순으로 차이가 있었다. 성교육 경험자(219명)를 대상으로한 성교육의 도움정도(효율성)를 조사한 결과, 남자는 도움안됨 70.6%, 여자는 보통 79.5%, 도움됨 13.9% 순으로 나타났다.
- 3) 연구대상자의 성별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에서 예방가능이 남자 58.8%, 여자 65.2%로 나타났으며, 성폭력을 예방하는 대처방안에서 남자는 호신술 및 호신용품 소지 35.3%, 이른 귀가 32.4% 순이었고, 여자는 이른 귀가 41.2%, 단정한 옷차림 20.9% 순으로 차이가 있었다.
- 4) 연구대상자의 성폭력 관련요인간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성교육 경험 유무와 성폭력 수준인식, 성폭력 수준 인식과 성폭력 책임범위인지, 성폭력예방가능 여부와 성범죄 예방법 인지여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 5) 연구대상자의 성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성폭력 인식 및 대처요인에서 현행 성폭력의 수준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교육경험 있음 91.8%, 없음 83.3%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으로는 경험자 경우 이른 귀가 37.0%, 호신술 및 호신용품소지 23.3%, 단정한 옷차림 21.0% 순이었다.
- 6) 연구대상자의 성 피해 경험 여부(자가판단)에 따른 성폭력 인식 및 대처요인에서 성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79.8%)가 없는 경우(91.6%)보다 성 피해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폭력 증가 이유에서도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가해자의 처벌미약 71.8%, 성문화 개방풍조 15.3% 순이었다.
- 7) 연구대상자의 성 폭력 예방가능 여부에 따른 성폭력 인식 및 대처요인에서 성폭력 증가이유($p < 0.01$), 성범죄 예방법 인지여부($p < 0.01$), 성폭력 예방법($p < 0.05$)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성교육의 양상을 살펴볼 때 학교에서의 성교육 내용은 주로 성생리와 성범죄에 집중되어 있고 성역할이나 성윤리 등을 포함한 균형 잡힌 성교육의 실시로 남녀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들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또한 성범죄 발생의 근본이 되는 문제는 연구대상자들의 의견처럼 성범죄 처벌기준에 있어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사형에 처함이 기본법 조항으로, 그외 거세, 태형, 사회격리 등 보다 강력한 방법으로 처벌을 이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강도를 실감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및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고 단호하게 제재수준을 높이거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성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올바른 성가치관 확립에 노력해야 할 것이고, 성에 대한 제반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성교육을 위해서는 성교육 지도방법에서부터 단체지도의 획일적 방법보다는 성별, 개인별측면의 발달특성을 고려한 개별화교육과 교육실시 후 성과와 성교육에 대한 인식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활동 및 피드백 시스템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강희순. 대학내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실태와 대처방안[석사학위논문]. 전남: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2. 김두화, 김경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학생생활연구 2002;23:57-96.
3. 김선혜. 고등학교 보건교육 내용분석과 보건교육실태조사[석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3.
4. 김향숙.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성교육현황분석 및 개선방안[석사학위논문]. 경북: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5. 김희숙. 성폭력에 대한 여고생의 대처행동 [석사학위논문]. 전북: 군산대 대학원, 2005.
6. 노미정. 성교육프로그램이 아동의 성지식 및 성태도에 향상에 미치는 효과[석사학위논문]. 충남: 공주대학교 대학원, 2003.
7. 문지원. 대학생 성교육을 위한 성지식 수준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99.

8. 서울대학교 성희롱·성폭력상담소. 2003년 대학생 성의식 및 성폭력 실태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상담소, 2004.
9. 신혜선. 직장내 성희롱 인식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충남: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10. 신혜숙.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여대생의 태도 유형, 여성간호학회지 1996;2(2):147-163.
11. 심영희. 성폭력·성희롱 관련법의 내용과 예방대책, 학생생활연구 2000;27:109-131.
12. 여성부.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 서울: 여성부 2002. 쪽 27-47.
13. 여성부. 대학성희롱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간담회 자료집, 2002. 쪽 18.
14. 여성부. 대학성희롱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간담회 자료집, 2005. 쪽 21.
15. 이혜은. 성적 괴롭힘에 대한 여대생의 대처 양태[석사학위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8.
16. 임재연. 대학내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실태와 대처방안[석사학위논문]. 대전: 침례대학교 상담대학원, 2006.
17. 정해은, 조희진. 대학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실태 및 그 대책에 대한 연구, 오산대논문집 2002;12(20):55-107.
18. 허선희.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재범방지에 관한연구, 경기: 한세대학교 경찰법무대학원, 2008.
19. 허정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광주: 조선대학교 대학원, 2008.